

5대 지주 혁신금융 전면에... 대출 프로세스 확 바꾼다

신한금융 혁신기업에 62조 목표
KB금융 7000억 규모 펀드 조성
우리銀 기술금융 순증가액 5.7조
농협금융 농산업 특화된 혁신금융
하나금융 3년간 20조원으로 상향

2020년 새해 금융권 화두로 '금융의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하게 떠오르는 가운데, 5대 금융지주(신한·KB·우리·하나·NH농협)가 그룹차원의 혁신기업 투자와 디지털화를 주요 경영전략으로 내세웠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혁신성장을 은행 산업의 핵심 기능으로 규정하면서 각 금융지주 또한 전폭적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5대 금융지주, 혁신금융 지원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3월 '신한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를 출범한 신한금융그룹은 2019년부터 5년간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62조원, 직접투자에 2조 1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출범 9개월인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13조 8000억원의 금융지원과 4600억원

금융지주	추진계획
신한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62조원 규모 금융 지원 (동산담보 0.2조원, 기술금융 56.2조원,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협약 보증대출 5.5조원) 5년간 2조1000억원 규모 직접 투자 (신한퓨처스랩, 신한BNPP창업벤처펀드 등)
KB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62조6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5년간 3조6000억원 규모 직접 투자
우리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31조1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스마트산업단지·스마트공장기업 등) 5년간 2조1000억원 규모 직접 투자
하나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2021년까지 3년간 20조원 규모 금융지원 비상장 주식 마켓 플랫폼 등록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금융서비스 제공
농협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간 19조원 규모 금융 지원 (동산담보 0.2조원, 기술금융 17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 1.8조원) 농산업 전문 벤처캐피탈(VC) 활성화



자료/각사

의 직접투자 성과를 냈다.

KB금융그룹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B혁신금융협회'를 운영하며 5년간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62조 6000억원, 직접투자에 3조 6000억원을 공급한다.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으로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KB증권·KB인베스트먼트 등이 약 7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5월 혁신금융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금융지원 ▲

여신제도개선 ▲투자지원 ▲핀테크지원 등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에 나섰다. 2019년부터 5년간 혁신기업 금융지원에 31조 1000억원, 직접투자에 2조 1000억원 공급을 목표로 잡고,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지원 6조 6000억원, 직접투자 184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은행의 기술금융 순증가액은 5조 7000억원으로,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금액이 지원됐다.

지난해 6월 혁신금융협회를 출범

시킨 하나금융그룹은 혁신금융 지원 규모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주력 계열사인 KEB하나은행은 기술보증기금, 코스콤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의 '비상장주식 마켓 플랫폼(Be My Unicorn)'에 지식재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은 플랫폼에 등록된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정보와 지식재산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지주는 농산업에 특화된 혁신금융을 추진한다. '청년스마트팜' 대출 확대와 더불어 농산업 전문 벤처캐피탈을 활성화해 5년간 총 19조원의 기술금융을 공급한다.

◆"기술금융맞춤 여신심사모형 구축해야"

시중은행이 혁신금융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금융과 벤처대출 상품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혁신금융에 특화된 여신심사모형은 갖춰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기술금융이나 벤처대출이 기존 대출 심사 방식인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한다.

금융경제연구소 나수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무구조에 기반한 대출 심사는 과거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미래 기술의 시장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을 평가해 금융을 공급한다는 혁신금융의 실질적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벤처대출을 시작한 금융그룹의 경우, 지주사 아래 벤처캐피탈(VC)이 없을 시 금융지원이 필요한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하나금융그룹이 하나벤처스, KB금융그룹이 KB 인베스트먼트를 VC 회사로 가지고 있으며 우리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차원의 직접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나 연구위원은 "금융사는 기술금융 분야의 고객을 발굴하기 위해 벤처캐피탈과 투자 또는 대출에 대한 공동 실사를 진행하는 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춰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정부 또한 은행의 혁신금융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metroseoul.co.kr

교보생명, 직무급 대상 직원 전체로 확대 "고객과 쌍방향 소통... 해외진출 선택 아닌 필수"

일의 중요도, 책임 따라 급여 결정

교보생명은 올해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이미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는 임원과 조직장에 이어 노사 간 상호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 직무급을 일반직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직무급제란 일의 중요도와 난이도 업무 성격과 책임 정도 등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인사제도를 말한다. 금융업계에서 직무급제를 일반직원까지 확대한

기업은 교보생명이 처음이다.

교보생명의 직무급제는 급여의 일정 부분을 직무급으로 분리해 각 직무등급에 맞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 시행에 앞서 지난해 노사가 함께 해외 선진기업을 찾아 직무급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교보생명은 직무급제를 도입해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새로운 제도 변화를 앞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 키워드 '개방과 협력' 규정

"고객 중심의 유연한 사고와 행동, 쌍방향 소통으로 영업 프로세스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김지완 BNK금융그룹 회장은 2일 시무식에서 이 같이 말하고 고객 중심 경영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오픈뱅킹 및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금융산업의 틀'이 바뀌고 있다"며 "유연한 사고와 행동, 고객과의 쌍방향 소통으로 영업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올해 BNK금융그룹의 키워드를 '개방과 협력'이라고 규정하고 "고객 중심의 개방형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외진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해외 진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글로벌 수익 비중 5%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을 확장하고 현지에 특화된 금융 모델을



BNK금융은 2일 부산광역시 문현로 본점 대강당에서 임직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그룹 시무식을 개최하고 새해의 각오를 다졌다. /BNK금융그룹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의 투병식 체계를 더욱 효율화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자"며 "자산관리(WM)와 기업투자금융(CIB)을 그룹 핵심 수익원

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비은행 계열사의 시장 지배력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을 실천해 지역과 상생하고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BNK 행복체인'을 만들어나가자"고 덧붙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m

우리銀, 감사함 담은 '우리고객님 정기예금'

우리은행은 거래 고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우리고객님 고맙습니다 정기예금'을 2일 출시했다.

우리고객님 고맙습니다 정기예금은 계약한 가입기간의 1/2을 넘어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기본금리에 우대금리까지 적용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가입기간 1년에 최고 연 1.9%, 2년 최고 연 2.0%다. 기본금리는 가입기간 1년 연 1.5%, 2년 연 1.6%다. 우대금리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연 0.4%포인트로 동일하며 ▲우리은행 거래기간에 따라 최대 연 0.2%포인트 ▲직전년도 우리은행 정기예금 가입이력 보유시 연 0.1%포인트 ▲우리은행 첫거래 또는 비대면채널 이용 가입시 연 0.1%포인트가 제공된다. 상품은 1조원 한도로 판매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우리고객님 고맙습니다



이벤트'를 다음달 29일까지 진행한다. 우리은행 적립식상품(정기적금·청약저축·적립식펀드)가입 및 급여이체, 자동이체 등의 거래실적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바다프렌드 안마의자(1명), 삼성에어드레서(5명), LG공기청정기(10명), 에어팟프로(30명), 네이버바이브뮤직 1개월이용권(2020명)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또 1월 한달간은 스타벅스커피쿠폰(3만명)을 추가 제공한다. /홍민영 기자

KEB하나銀, 하이파이브하며 새해 첫출근

KEB하나은행은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본점에서 지성규 은행장과 임직원이 새해 아침 인사를 나누며 2020년 경자년(庚子年)의 첫 영업일을 활기차게 시작했다.

지성규 은행장 이하 모든 임원이 출근시간 본점 로비에서 환한 미소와 하이파이브로 출근하는 직원들을 맞이했다. 임직원들은 한마음이 돼 하나금융

그룹의 경영 슬로건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가 추구하는 '모두의 행복'을 염원하며 새해 첫날 업무를 시작했다.

지행장은 경자년(庚子年) 쥐의 해를 맞이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힘센 쥐'를 상징하는 마이티 마우스 인형과 행복을 상징하는 떡을 직원들에게 선물했다. 또한, 영업점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새해 소망 게시판'의



2일 서울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에서 지성규 은행장이 직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러 사연들을 직접 소개하며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홍민영 기자